

빌딩 숲 대신 진짜 숲...힐링이 되는 풍경 속으로

이번엔 자연이다. 잘 다듬어져 화려한 도시가 아닌 풀벌레가 울고 흙내음이 절로 느껴지는 자연이 안방극장에 스며들고 있다. 한동안 여행이 ‘대세’를 이룬 예능프로그램이 이제 자연 그 자체를 핵심 배경으로 삼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SBS ‘리틀 포레스트’,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와 ‘일로 만난 사이’다. 자연 그대로 모습을 담아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 시선을 빼앗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속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제작진은 어떤 기준으로 촬영지를 선정할까.



tvN ‘삼시세끼’



tvN ‘일로 만난 사이’



SBS ‘리틀 포레스트’

‘삼시세끼’ 인위적 느낌 최대 배제 ‘리틀...’ 흙·잔디, 아이 안전 우선 ‘일로...’ 지친 몸 달래줄 수 있어야

● ‘힐링의 공간’

‘자연 예능’의 선두주자 격인 ‘삼시세끼’를 기획하고 연출한 나영석 PD는 “인위적 느낌이 최대한 배제”된 장소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동안 ‘삼시세끼’는 강원도 정선과 전남 고창의 산촌을 비롯해 전남 고흥 득량도와 신안 만재도 등 섬에서 촬영해왔다. 보기만 해도 한적한 느낌이 물씬 풍겨 시청자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도시에서 느끼기 어려운 여유로움이 가득한 공간들이다.

따라서 장소 선택의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연출자, 작가들과 논의해 촬영지의 대략적인 이미지를 정한 뒤 적합한 후보군을 뽑는다. 방송에서 많이 노출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다큐멘터리나 관련 서적 등을 참조하고 주변의 추천을 받기도 한다. 어느 정도 구상을 마친 뒤에는 직접 해당 장소를 둘러보고 교통과 장비 설치의 불편함 정도를 따진다.

나 PD는 “시청자에게 자연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대리만족과 힐링의 기운을 전하고 싶다”면서 “빌딩 숲에서 막 빠져 나온 직장인이 TV를 보며 심리적 편안함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 ‘손에 닿을 듯한 자연의 공간’

‘리틀 포레스트’는 TV 속 ‘작은 숲’이

다. 손을 뻗으면 시원한 강물과 초록빛 나뭇잎이 닿을 수 있는 강원도 인제 짝박골에서 이서진·이승기와 아이들이 뛰놀았다.

제작진은 촬영지로 강원도를 일찌감치 정한 뒤 여러 지자체의 조언을 구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밭 밭은 어디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짝박골을 연출자 김정욱 PD가 최종 낙점했다. 출연자들이 생활하는 집은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앞마당에는 텃밭과 꽃밭이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촬영한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염두에 뒀다. 김 PD는 “주변은 흙과 잔디”라며 “아이들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햇볕이 뜨거워도 그들이 많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찾

았다”고 했다. ‘일로 만난 사이’ 촬영지는 일손을 요청하는 신청자들의 주거지에 따라 달라진다. 제작진은 자연을 벗 삼아 일할 수 있는 촬영지를 우선 추진 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24일 1회는 이효리와 함께 그가 거주하는 제주도에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작업을 배경으로 했다. 사방의 초목물결이 눈의 피로함을 덜어줬다는 반응을 얻었다.

연출자 정효민 PD는 “일하다 굶은 허리를 피고 기지개를 켜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자연의 다양한 매력이 느껴지는 풍경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4

BTS 백업댄서가 꿈이라는 ‘웨서방’



웨슬리 스나이프스

할리우드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유별난 한국 사랑을 드러냈다. 총북극제 무예액션영화제 참석차 최근 내한한 그는 2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다재 다능한 액션 배우와 감독들을 만나 이들을 통해 액션영화의 황금기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기차에 좀비 떼가 모여 있을 때 생존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영화 ‘부산행’을 언급했다. 한국인 박나경 씨와 결혼해 ‘웨서방’이라고도 불리며 ‘초코사자’라는 한국어 별명을 가진 그는 “은퇴 후 방탄소년단의 백업 댄서를 하고 싶다”며 “그들 앞에서 오디션을 보겠다”고 농담을 건넸다. 영화제는 29일부터 9월2일까지 중주에서 열린다.

이종현, 女 BJ에 SNS 메시지 논란



이종현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알려진 그를 씨엔블루의 이종현이 여성 유튜버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유튜버 겸 인터넷 개인방송 BJ 박민정은 28일 SNS에 이종현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종현은 “뽕살 너무 귀여우세요”라고 썼다. 앞서 이종현은 ‘정준영 단톡방’ 등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SNS 메시지로 또 다시 논란의 외곽에 섰다. 이종현은 지난해 8월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잘못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영애 ‘스타체어’ 동참...수익 기부



이영애

배우 이영애가 롯데컬처웍스의 사회공헌 활동인 ‘해피엔딩 스타체어’의 주인공이 됐다. ‘해피엔딩 스타체어’는 배우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역과 영화를 골라 관객과 대화한 후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영애는 9월 7일 서울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에서 관객과 만나 ‘친절한 금자씨’를 소개한다. 관객과 대화할 촬영 뒷이야기, 서울 명동 인근에 깃든 추억 등을 공개한다.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해당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된다.

승리, 해외 원정도박 혐의 일부 인정

“다시 심려 끼쳐 죄송”...경찰 출석 환치기는 부인...양현석 오늘 소환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28일 서울 중랑구 목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스

그림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29)가 28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해외 원정도박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명 ‘환치기’ 등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9시55분경 정장 차림으로 서울 중랑구 목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후 이날 밤 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비롯해 상습성 여부, ‘환치기’ 등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미국 카지노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그와 같은 혐의를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과 관련해 1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 거래 자료 등도 조사에 참조했다. 이에 승리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자금의 출처로 의심받는 ‘환치기’ 등 혐의는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황령 등 각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65일 만에 이날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경찰에 출석하며 “원정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느냐’ ‘도박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고, 얼마나 썼느냐’ ‘다시 경찰에 소환된 심경’ 등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해외 원정도박 혐보를 받고 내사해오다 14일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결국 승리를 소환 조사함으로써 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 속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양현석도 29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백슬미 기자

이번엔 포커...‘타짜3’ 흥행 불패 잇나

박정민·류승범 최상의 시너지 기대 권오광 감독 “3편 동시대 상황 담아”



영화 ‘타짜:원 아이드 잭’

한국영화 흥행 시리즈 ‘타짜’가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다. 고유한 매력은 여전하고, 캐릭터들의 짜릿한 개성은 더욱 견고해졌다.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걸고, 목숨까지 내던지는 타짜들의 속고 속이는 승부가 9월11일 개봉하는 영화 ‘타짜:원 아이드 잭’(타짜3)에 담겼다.

28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시사회를 열고 배일을 벗은 ‘타짜3’(제작 씨아티스트)는 도박, 돈, 속임수, 승부, 복수 등 시리즈를 관통해온 키워드로 버무린 장르영화다. 2006년 조승우·김혜수의 ‘타짜’(568만 명), 2014년 최성현·유해진의 ‘타짜:신의 손’(401만 명)의 후속편이지만, 주연 박정민·류승범이 시작하는 또 다른 시리즈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1편에 짧게 등장한 경상도 타짜 ‘짜귀’(주진모)의 아들 도일출(박정민)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공시생’인 그는 타고난 승부 기질을 어찌지 못해 밤마다 포커판을 기웃대다 우연히 만난 마돈나(최유화)와 얽혀 버터미에 얽는다. 절박한 그의 앞에 애꾸(류승범)라는 이름의 남자가 나타나고, 둘은 50억 원을 노린 ‘한 탕’을 준비한다.

박정민과 류승범은 최상의 시너지로 시선을 빼앗는다. 출연을 먼저 확정된 박정

민으로부터 손 편지를 받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류승범은 “애꾸라는 인물은 수중기 같아서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겼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거주해온 류승범은 이날 4년 만에 취재진 앞에 섰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은 늘 진보한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민은 “승범 형님이 너무 좋아 졸음 따라다녔다”며 “그 동경이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타짜3’는 기존 시리즈의 길을 따르면서도 적지 않은 변화도 추구한다. 일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추측 명절을 겨냥하는 점에서는 같다. 등급에 걸맞게 최유화와 이광수의 파격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바뀐 건 도박의 종목. 화투를 다룬 1·2편과 달리 이번에는 포커다. 연출자 권오광 감독은 “전편이 과거를 다루지만 3편은 동시대의 상황을 담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윤상현 집 부실공사 논란...‘동상이몽2’ 불뚝

시공사 측 “명백한 편파 방송” 주장 제작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부부와 이들의 주택을 시공한 A사의 갈등은 19일 ‘동상이몽2’ 방송 이후 시작됐다. 윤상현은 방송에서 최근 신축한 주택의 누수 등 시공 피해를 공개했다. 이에 A사는 “윤상현이 보수를 거부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하자 보수금 2억4000만 원을 요

구했다”며 그를 상대로 잔금 등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상현은 “심각한 시공 피해 상황은 그대로다. A사의 계속된 허위 주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A사가 ‘동상이몽2’ 제작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28일 “방송에서 배우 등 윤상현이 결정한 사항마저 하자로 비쳤다”며 “하

자를 과장하고 참혹하게 보이도록 한 설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의)반론을 내지 않고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방송이자 편집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

SBS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내부 회의를 거듭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9월2일 방송하는 ‘동상이몽2’의 예고편도 문제 삼은 상황이라서 향후 사태 전개에 시선이 쏠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